

# 中企 현실에 맞는 정보화 통해 혁신기업 육성

국가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지닌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진보 등 경제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가장 큰 중소기업 경영애로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취임한 양해진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탈피,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능력을 갖춰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에 그치지 않고 정보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양해진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은 그동안 기관장으로서의 업무과약 및 중소기업 근무자들을 위한 온라인 IT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양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현장전문가다.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을 거쳐 중소기업청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광주·전남지방중기청을 역임한 바 있다. 양 원장은 취임 후 <디지털콘텐츠>와의 첫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기술혁신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공언했다.

##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위해 적극 지원

이에 양 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약 3,0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 고부가가치 기술을 지닌 정보화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받을 대상 기업은 정보화혁신컨설팅에 1,300개 업체, 클러스터 사업에 1,200개 업체 그리고 생산정보화에 500개 업체가 될 것이다.

“이들 정보화혁신기업 가운데 경영 및 공정혁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화혁신 선도기업으로 지정, 인증서를 주고 정책자금지원에 우대혜택을 주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우선 생산현장에서 컴퓨터로 실시간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e매뉴팩처링을 실현할 수 있게 기업당 5,000만원 한도에서 소프트웨어개발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협동화단지 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 등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공동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게 지역별 정보화클러스터를 올해 안에 7개 구축할 것이며 “지역 클러스터는 초고속통신망 사내통신망을 지역데이터센터 정보화실습 교육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클러스터당 최고 4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업종별 클러스터 결성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2억원까지 자금을 대줄 계획이다.

## 지난해 250여 기업 정보화 지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중소기업들의 정보화를 통해 혁신역량을 키우자는 취지 아래 '중소기업혁신촉진법'에 근거해 2002년 1월 중소기업청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술보급 평가와 표준모델개발, 확산, 정보화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정보화경영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 '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 서포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정보화 종합건설팅사업이나 정보화혁신전문기업(TTIPs) 사업, 생산정보화사업 등 자금 지원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한 정보화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생산정보화 사업에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6개사의 제조현장을 디지털화했고 정보화혁신 전문기업 사업에 54억원의 예산을 들여 105개사를 지원했다. 또한 지역 정보화혁신클러스터로 12곳을, 업종별 정보화혁신클러스터(조합정보화)로 7개 조합을 지원한 바 있다.”

양 원장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올해는 “기업수준별 정보화 사업에 차등을 뒀서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중소기업 정보화 업그레이드 사업 구상중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화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떤 수준의 정보화가 바람직한지 파악하도록 하고, 수준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정보화를 추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업그레이드나 한 단계 높은 정보화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도 구상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들 중 일부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정보 시스템 유지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 그는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시행해 중소기업이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원은 조사를 통해 이미 구축한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져 교체할 해야 한 다거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등 정보시스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이 해당 내용을 경영원이나 지방 중소기업청에 신고하면 자체인력이나 지역 IT업체 또는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이와 함께 경영원은 중소기업 정보화 성과측정을 위한 다양한 기법도 개발 중인데, 정보화를 추진하면 전체적으로 약 20%의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를 분야별로 좀 더 계량화해 표준화된 모델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보화경영원은 정보화 포럼 개최를 비롯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중소기업현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화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전문인력 부족 등 중소기업의 구조적 정보화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한 정보화 아웃소싱 프레임워크를 개발 등을 구상 중이다. 또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3억여만원을 투입해 5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장 눈높이 맞춘 시책 펼칠 예정

양 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산하 여러 부처들이 중소기업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 기업들의 마인드나 인식이 개선된 것



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책수요나 눈높이를 맞춘 시책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보화도 원칙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담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소기업 정책은 직접 보고를 들은 후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화 시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IT기업 그리고 정보화경영원 3자가 머리를 맞대 가장 좋은 지원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장은 물론 전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또한 중소기업과의 좌담회도 열 계획입니다.”

현장에 보다 다가가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화경영원은 올 한해 동안 1,300개 기업들의 생산현장에 정보화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생산현장을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중소기업정보화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정책은 ‘현장정보화 컨설팅’을 위해 대학 연구소 컨설팅업체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중소기업에 찾아가 정보화 계획 수립부터 정보화시스템 구축까지 일괄 컨설팅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고 1,500만원을 지원기로 했으며 이 사업에 총 100억여원이 투자된다.

지역 현장의 소리를 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는 올 한해동안 지방 6개 도시의 지역 간담회를 계획 중이다. 광주, 경북, 충남을 비롯한 6개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환경 및 정보화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 현장중심 지원정책을 모색할 작정이다.

“아직 기대만큼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양 원장은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